

MET2026 해외단기선교 소감문

이름(식별기호)	이유림(D)	소속	수지 대학 5캠퍼스	일정	2026.01.13-01.20	나라	대만
<p>처음 해외선교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좋다고 하는 해외 선교를 한번쯤은 가보고 싶었던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명확한 기도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역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단지 우리 팀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 정도였습니다.</p> <p>하나님께서 나를 왜 해외선교를 보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선교가 하루 하루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로 보내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선 저를 다듬으시고 빛으시기 위해, 제게 없는 성품과 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p> <p>해외선교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리 팀 모두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모습들, 언어의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번역기를 돌려가며 소통하려 애쓰는 모습, 기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모습, 함께 하루의 사역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p> <p>하지만 처음에는 선교를 통해 받는 은혜와 즐거움에 빠져 팀원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의 나눔 후 한 발짝 더 뒤로 물러나 우리 팀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팀원들 한 명 한 명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쳐있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p> <p>섬김의 자리는 한 발자국 더 뒤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 뒤에서는 묵묵히 밀어주고, 옆에서는 칭찬과 격려를, 앞에서는 이끌어줘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즐겁다는 이유로 팀원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 미안했습니다.</p> <p>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서로를 더욱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부족함보다는 장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p> <p>나눔 중에 목사님께서 우리팀이 무지개 같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달랐지만 우리가 함께했을 때 무지개처럼 빛났다는 것,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일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p> <p>또 하나의 기억에 남는 선교는 나눔 시간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나눔을 통해서 각자의 간증과 그 간증 속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저는 제 이야기를 잘 꺼내지도 않고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외선교에서 나눴던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목자가 되었고, 해외선교를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사역은 어땠는지 나누게 되면서 궁금해지고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p> <p>그리고 저 역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공동체에도 털어놓지 않았던 제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p>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눔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눔이 더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원들에게 이 나눔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할 수 있을까? 나눔을 통해 다시 배운 목양을 이제 목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들과 함께 목장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받은 은혜들을 목장과 공동체에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해외선교를 다녀온 지금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어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구하며 찾아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기대하며 감사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해외선교로 부르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